

주주행동주의 시동건 국민연금-KCGI... 한진家は '폭풍전야'

'금고이상 유죄뎌 해임' 정관변경, 주총통과 쉽지 않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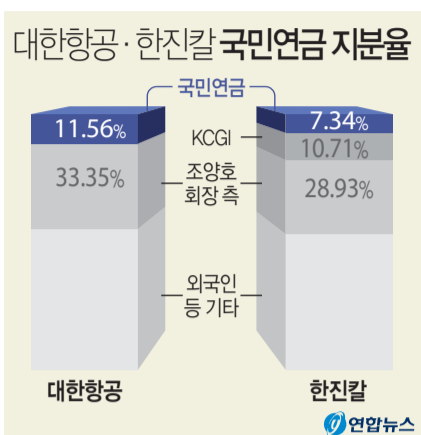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한항공엔 주주권행사 않기로
국민연금-한진家, 내달 주총 주목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일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향후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한진칼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정관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3월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진그룹 경영활동 위축 우려...행동주의 사모펀드 주목

한진그룹이 국민연금의 한진칼 정관변경 추진에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최악의 수로 꼽혔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회해임이나, 사외이사선임·추천 등에 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



히 불안감은 존재하고 있다.

국민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한진그룹은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운용위가 추진하는 정관변경은 "이사회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현재 배임·횡령 등으로 줄줄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양호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운용위가 한진칼에 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본사

이사해임이나 사외이사선임 등의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진그룹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로서 공개적으로 조 회장의 경영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현재 KCGI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하고 있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엔케이엔코홀딩스, 타코마엔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와 한진 지분 8.03%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로, 대한

공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양쪽의 압박은 조 회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관변경 한진에 유리

조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 정관을 변경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자동 해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너가 해임을 위한 정관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관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하며 주총 정족수(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참석)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조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가진 지분은 28.93%다. 국민연금(7.34%)과 토종 사모펀드인 KCGI(10.71%)의 지분을 합치고

나머지 투자자 지분을 가져온다고 해도 참석 주식수의 3분의 2를 넘기기 쉽지 않다. 국민연금과 KCGI가 얼마나 많은 의결권을 확보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 국민연금 기금위는 임원 해임, 사외이사선임, 의결권 사전공시 등을 이번엔 행사하지 않으며 대한항공에 대한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정해 우회적인 경영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고, 한진칼에 대해 일단은 제한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이번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향후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며 "KCGI의 등장은 국내에서 주주 행동주의 펀드 확산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컴플라이언스위원회(준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등의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체 혁신안을 통해 임직원과 외부 주주의 신뢰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창립 50주년' 대한항공, 소리없이 조용히

3월 1일 50주년... 기념행사 없이
임직원간 소통 행사만 진행할 듯
경쟁력 구축 등 내실 다지기 집중



조양호 한진 회장

/연합뉴스

오는 3월 1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항공이 별다른 기념 행사 없이 조용히 넘어간다.

창립기념일은 기업들이 해마다 챙겨온 연례행사로, 대한항공의 경우 창립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화합과 희망의 자리를 마련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이는 한진그룹 오너 논란과 국민연금과 국내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공세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달 1일 국적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창립 50주

년을 맞이하지만 별다른 홍보와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창립 50주년과 관련해 대규모 기념 행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임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행사는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현재 조양호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해 발생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갑 갑질'로 촉발한 정부의 전방위 수사에 '벼랑끝'으로 몰린 상태다. 이로 인해 조현아·현민 등 조 회장의 자

매는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경영 승계를 위한 '마지막 카드'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역시 대학 불벌 편·입학에 따른 학위 취소 처분을 두고 당국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갑질 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경영권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다.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지난해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한진칼 지분을 획득하며 2대 주주에 오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잠잠했던 이들은 새해 들어 '한진그룹의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며 사실상 조 회장 퇴진 요구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올해 대내외 악재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나선다.

우선 전사적 경영체질 개선을 통한 재도약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신시장 개척 등 수익성 중심의 사업운영을 통해 성장동력

을 강화하고, 절대 안전 운항체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질적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리는 IATA 총회 개최로 국제 항공업계에서 위상을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IATA는 매년 전 세계 항공사 최고경영자들과 항공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항공업계의 UN 회의'라 불리는 연차 총회를 개최한다. 서울 총회는 국내 항공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항공 주관으로 개최된다.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활용한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증대에도 나선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오는 4월부터 각각 인천~보스턴(대한항공)과 인천~미네아폴리스(델타항공)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등 미주 내 290여 개 도시와 아시아 내 80여 개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노선 스케줄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이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대대적인 그룹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양성준 기자

주종목 확고해진 배터리시장... LG화학 '전기차', 삼성SDI 'IT'

LG화학 전기차배터리 첫 '흑자전환'
삼성SDI 고용량 소형 배터리 정조준

국내 대표 배터리기업으로 꼽히는 LG화학이 삼성SDI가 서로 다른 배터리로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를 주력으로 지난해 4분기 첫 흑자를 기록했고 삼성SDI는 스마트폰 배터리 판매량을 확보하면서 소형 배터리 시장 개척의 포문을 열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삼성SDI는 소형 배터리 시장에서 각각 선전했다.

우선 LG화학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3.3%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부분에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해 눈길을 끌었다. LG화학은 지난해 4분기 배터리 부문에서 분기 매출 첫 2조원을 돌파하고 그중 전기차 배터리는 분기 기준으로 손익분기점도 달성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매출액 1조원을 돌파, 전체 배터리 사업 매출액 비중이 50%에 달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힘입어 올해도 배터리사업에 규모있는 투자

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2020년까지 중국 난징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6000억원, 소형 배터리 공장에 6000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난징 외에도 빈강 경제개발구에 전기차 배터리 2공장을 건설 중이다.

반면 삼성SDI는 'IT 배터리' 분야에서 돋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삼성SDI는 배터리사업에서 매출 1조 879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5616억원(42.6%) 증가한 수치다. 삼성SDI는 특히 소형 배터리 부문에서 원형배

터리의 전동공구 시장 확대와 폴리머배터리의 신규 스마트폰 진입으로 매출 성장을 지속했다.

IB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의 IT 배터리 매출액은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체 배터리 사업 매출액에서 약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삼성SDI는 주 공급처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형 배터리 판매를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삼성SDI는 리튬이온전지 시장의 수요 확대를 발판으로 배터리 수익성을 확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전경. /LG화학

대할 계획이다. 또 삼성SDI는 소형 원형 전지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 천진 2공장을 신규 가동할 예정이며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제품의 소형 배터리 수요 증가로 관련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